

# 무주군, 국비 확보 분주

### 황정수 군수, 예산심의 종료 앞두고 부처 방문 주요 사업 국비 요청

2018년 중앙부처 예산심의 종료 앞두고 무주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세종시)와 행정자치부(서울시)를 방문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지난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무주군 도로과와 미래비전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찾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건설 사업비 50억 원을 요청했으며, 문화관광(태권도)과 예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한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주국민체육센터 진입 연결도로 설치공사와 안성 공정지구 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군수는 "세계 태권도성지로 도약하고 있는 무주가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은 영호남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국가발전을 도모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국도건설은 태권도원 운영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3.6km 거리단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3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2018년~2022년, 4차로 확장)이다. 이날 무주군이 지원을 요청한 국비 50억 원은 2018년도 사업 착수와 토지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한편 국민체육센터 진입 연결도로 설치공사(2017년7월~2018년12월 도로 개설)는 주변상권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군비 3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이날 소요사업비 중 10억 원을 특별교부세

로 요청했다.

안성 공정지구 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진입로 확장) 군비 포함 사업비 25억 원)은 현재 조성 중인 복합단지(체류형 가족실용농장 등 조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무주군은 올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안성면 공정지구~봉산마을 구간에서 교량 1개소와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2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용담댐 물 공급으로 식수난 해결

### '진안계통 급수체계 조정사업' 준공식 개최

진안군은 17일 고질적인 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용담체련공원에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계통 급수체계 조정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두고 있는 금산정수장에서부터 진안군까지 연결되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완성돼 이를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

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관로 31.4km와 가압장 2개소를 신설해 고도 정수처리한 6,600톤(1일)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함에 따라 진안군은 8개 읍·면의 181개 마을, 8,151세대에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그동안 진안군은 하천수,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활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함에 따라 갈수기에 수량부족과 수질 저하라는 지방정수장의 크고 작은 상수도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광역상수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진안군과 K-water가 적극 공조해 주민들에게 먹는 물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계남중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이달 마무리

장수군은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녹색청정 지역에 위치한 학교 녹지공간 확대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상숲을 조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계남중학교와 명상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갖고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나무, 느티나무, 수양

뽕나무, 영산홍, 화양목, 자산홍, 백철쭉, 조팝나무 등 9종 1,285주를 식재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정서순환 공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마무리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계남중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은 계남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

영,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썬터 조성과 자연학습 공간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계남중학교는 1980년 개교해 올해까지 1,86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재학생은 22명이 재학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반딧불이 보고 영화도 보고

### 무주 반딧불이 신비탐사, 6월 3일~5일 밤 실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6월 2일~6일)와 함께 하는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20:30~)가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실시될 예정이다.

탐사 신청(하루 최대 800명 선착순)은 6월 2일까지 반딧불축제 홈페이지(<http://www.firefly.or.kr>)를 통해서 하면 되며 8,000원이면 체험이 가능하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서식지에서 직접 반딧불이의 반짝임과 생태환경을 관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5월 말~6월 초(운문산반딧불이), 8월 말~9월 초(늦반딧불이/반딧불축제 기간 중 실시)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산골영화제 기간에 열려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무주읍 서면마을(하루 최대 100명)에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함께 살다리 걷기와 전통혼례, 전통놀이, 모심기, 떡 메치기 등 농촌체험도 즐길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서면마을은 산골영화제 마을극장으로 6월 3일(21시30분~)에는 '할머니의 먼 집(다큐멘터리)'이 6월 4일(21시30분~)에는 '나의 산티아고', 6월 5일(21시30분~)에는 '랜드 오브 마인'이 상영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최홍운 반딧불이 담당은 "올해는 영화와 농촌체험이 담긴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환상적인 추억을 밤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사용 조사

장수군이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군 관내 200개 마을회관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은 연면적 500㎡ 이하로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2009년 이전에 건축된 200개 마을회관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석면지도를 작성 관리함은 물론, 석면이 검출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마을회관 보수사업과 연계하여 석면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의회 '홀가분' 도서관 인기

무주군의회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청사 현관에 의자와 미니 책장을 설치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홀가분'으로 명명하고 누구나 읽기 쉬운 간편한 문고 등을 비치해 독서 공간이자 힐링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방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형문자처럼 '희망'이라는 글자 모양을 그대로 본떠 화강석으로 만든 의자 옆에 가로 60cm, 세로 100cm 규격으로 설치한 홀가분 도서관은 책 60권을 비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항상 개방돼 있다. 또 이 도서관에는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읽은 책 중에서 감명 깊었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보기를 권장하는 좋은 책을 기증받아 비치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 가져

진안군은 17일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 임원 60여명, 용담호 환경대학 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을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가졌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이하 '수질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주민 교육과 홍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리더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

김지수 주민협의회장은 "수질자율관리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용담호 환경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의 환경리더를 양성한

점이다"며 "향후 자율관리의 지속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 실천 노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지역의 환경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율관리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대학은 오는 6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6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환경분야 교수,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 전문가를 초빙해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등 환경보전의식 향상, 금강 순례 등 현장 체험학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안전 점검

진안군은 17일부터 19일까지 학교 주변 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문방구, 슈퍼 등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안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식품 보존과 유통기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함께 완제품 수거 검사를 동시에 시행해 식품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